

에디슨 한인 성당

Our Lady of Mercy Parish



동쪽과 서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칫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They will come from east and west and recline at table in the kingdom of God.

미사 안내

한국어 주일 미사 오전 11:30

영어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0:00

영어 토요일 미사 오후 4:00

평일 미사 (화) 오후 7:00

(수 - 금) 오전 9:00

평일 미사 30 분 전 묵주기도 봉헌

Website <https://www.edisonkcc.org>

Email office@edisonkcc.org

성사 및 교리 안내

고백성사 미사 15 분 전

혼인성사 6 개월 전 신부님께 연락

유아세례 신청서 작성 후 사무실 또는 신부님께 신청

병자성사 신청서 작성 후 사무실 또는 신부님께 신청

예비자교리 매 주일 미사 후

주일학교 매 주일 오전 10:00 - 11:15

안내봉사

8 월 순교자들의 모후 Pr.

9 월 성모 성심 Pr.

친교봉사

8/25 노스에디슨

9/1 에디슨

성당 및 사무실 안내

성당 및 The Church of Our Lady of Mercy

사무실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732) 356-1037

근무시간 화 - 금 오전 10 시 - 오후 3 시

성직자 및 평협회장

주임신부 이남웅 스테파노

본당부제 윤석로 이나시오

평협회장 한상철 빈첸시오

복사

8/25 Gregory Baek, Gina Park

9/1 Jecenia Langan, Jin Park

전례 봉사자

일시 8/25 9/1

1 독서 이윤정 프란체스카 박정훈 베드로

2 독서 추해웅 어스틴 맹순영 베로니카

신자들의 기도 조해남 로사리아 김중화 아가다

봉헌 조인, 조해남 변태용, 변인순

성체분배 오애희, 이재성 임문수, 김영필



오늘의 성가

입 당	34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주	성 체	168 182	오묘하온 성체 신묘하온 이 영적
봉 헌	342 510	제물 드리니 주님께 올리는 기도	파견	31	이 크신 모든 은혜

말씀의 초대 卍 주님께서서는 모든 민족들에게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살아남은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겠다고 하신다(제 1 독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주님께서서는 사랑하시는 이를 훈육하신다며 시련을 견디어 내라고 한다(제 2 독서). 예수님께서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쓰라고 하시며, 지금은 첫째지만 끝짜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신다(복음).

제 1 독서

<그들은 모든 민족들에게서 너희 동포들을 데려 오리라.>

卍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66,18-21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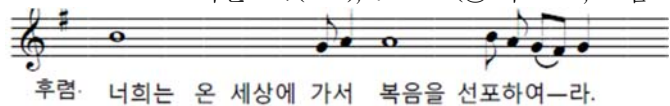
“나는 모든 민족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을 모으려 오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보리라. 나는 그들 가운데에 표징을 세우고 그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타르시스와 쏫, 활 잘 쏘는 루드, 투발과 야완 등 모든 민족들에게 보내고 나에 대하여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내 영광을 본 적도 없는 먼 섬들에 보내리니 그들은 민족들에게 나의 영광을 알리리라.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이 깨끗한 그릇에 제물을 담아 주님의 집으로 가져오듯이 그들도 모든 민족들에게서 너희 동포들을 주님에게 올리는 제물로 말과 수레와 마차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 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리라.

—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

그러면 나는 그들 가운데에서 더러는 사제로 더러는 레위인으로 삼으리라.” —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17(116),1,2 ㄱ나(◎ 마르 16,15 참조)



후렴: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모든 겨레들아. ◎

○ 우리 위한 주님 사랑 굳건하여라. 주님의 진실하심 영원하여라. ◎

제 2 독서

<주님께서서는 사랑하시는 이를 훈육하신다.>

卍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12,5-7,11-13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대하시면서 내리시는 권고를 잊어버렸습니다.

“내 아들이, 주님의 훈육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 책망을 받아도 낙심하지 마라. 주님께서서는 사랑하시는 이를 훈육하시고 아들로 인정하시는 모든 이를 채찍질하신다.”

여러분의 시련을 훈육으로 여겨 견디어 내십시오. 하느님께서서는 여러분을 자녀로 대하십니다. 아버지에게서 훈육을 받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훈육이 당장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으로 훈련된 이들에게 평화와 의로움의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맥 풀린 손과 힘 빠진 무릎을 바로 세워 바른길을 달려가십시오. 그리하여 절름거리기는 다리가 접질리지 않고 오히려 낮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요한 14,6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यो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 알렐루야

복음

<동쪽과 서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칫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3, 22-30

그때에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 동안, 여러 고을과 마을을 지나며 가르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 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주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도, 그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느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나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칫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보라, 지금은 끝짜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끝짜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미사지향

연미사	생미사
- 이명자(세실리아)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 한정숙(레지나)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 성태영(바오로), 성용순(미카엘라)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 김명자(헬레나)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 김교식(아고보)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 김응호(알레로)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 김준호(베드로)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 이동현(요셉)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 이영주님의 영혼을 위하여 - 이은하 - 천훈자(글라라)의 영혼을 위하여 - 이순재(마리아) 가족 - 변수달(요셉)의 영혼을 위하여 - 변태용(요셉) - 진억수의 영혼을 위하여 - 김종화(아가다) 가족 - 돌아가신 부모님 이종구, 홍승원(아가다) 영혼을 위하여 - 이경우	- 오홍순(카타리나)의 빠른 건강 회복을 위하여 - 오.사.모/홍원기(에우세비오) 가족 - 대자, 대녀를 위하여 - 최 율리아나 - 이현영과 가족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 김동근(사도요한) 가족 - 임혜숙의 건강을 위하여 - 이순재(마리아) - 김정민(말첼리노) 가족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 부모 - 정명좌(알비나), 이상화(알비노) 성가정을 위해 - 가족 - 백영숙(헬레나)의 생일을 축하하며 - 동생 요안나 - 김인영(수잔) 자매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 카도너 CLC

 지난 주 우리의 정성

KCC 주일 헌금	\$ 1,114	OLM 주일 헌금	\$ 2,809	미사 참여자 수	186 명
KCC 성모승천대축일 헌금	\$ 443	OLM 성모승천대축일 헌금	\$ 1,044	감사헌금	\$ 5,000(익명)
교무금 (\$ 1,770)	배인호(7-12)	김삼식(7-8)	강성천(8)	김동근(1-9)	배인경(7-8)
- 교무금, 개인 감사헌금, 주일헌금, 대축일 감사헌금, 2 차헌금 - Payable to Our Lady of Mercy 또는 OLM (월, 세대주 이름 및 본명을 꼭 기입해 주십시오)					

◆ **공동체 소식**◆ **2019년 신자 주소록 최종 확인 (8/25까지)**

• 친교실 성물대 옆에 공시된 주소록 최종 확인 바랍니다.
주소록 발간을 위한 최종 확인이니, 신자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9월 매일미사책 배부**

• 9월 매일미사책을 신청하신 분들은 백헬렌 자매님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9월부터 발행되는 새주보에는 독서와 복음말씀이 실리지 않으므로
매일미사책 지참 바랍니다.

◆ **추석 위령미사 봉헌 신청**

• 9월 8일(주일)에는 추석 합동 위령 미사와 차례상 차림이 있을 예정입니다.
• 추석 합동 위령 미사 봉헌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사단 전체 교육**

• 일시 및 장소: 2019년 8월 25일(주일) 미사 후 성당
• 대상: 신입단원을 포함한 모든 복사단원
• 내용: 지난주에 이은 전체교육과 신입단원 집중교육

◆ **예비자 교리반 안내**

• 교육기간: 2019년 10월 - 2020년 부활절
• 대상: 예비신자
• 문의 사항: 사무실 또는 선교분과장 이서형(요안나)
◆ **신자등록서 배부**
• 아직 신자등록서를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

◆ **도서관리 봉사자 모집**

• 본당 도서관 관리 봉사해주실 분 또는 단체를 구합니다.
• 문의: 사무실 또는 사회복지분과장 신용철(다니엘)

◆ **주보 광고주 모집**

• 9월부터 발행되는 새 주보에 게재될 광고주 모집에 교우분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본당발전기금 마련 골프대회**

• 일시: 9월 2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High Bridge Hills Golf Club
• 참가비: 100불
• 참가신청 마감일이 임박하였으니 서둘러 신청바랍니다.
• 대회 후 6시부터 성당에서 시상식과 바비큐를 곁들인 친교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골프대회에 참가하지 않으신 교우분들도 환영합니다.

◆ 뉴욕/뉴저지 제 4 차 선택 주말

- 날짜 : 2019 년 8 월 31 일(토) 10AM - 9 월 2 일(월) 3PM
- 참가대상 : 1981-1997 년생 청년 미혼 남녀
(한국어권, 영어권)
- 장소 : 뉴튼 수도원
St. Paul Abbey Rt206 Newton, NJ 07860
- 참가 신청 : www.choicenynj.com
- 참가 문의 : choicenynj@gmail.com
- 참가 신청비 : \$250 (\$50 non-refundable deposit)

◆ One-Day 9-Mile Walking Pilgrimage

- 메타천 교구 주관 과달루페 성모님의 발현을 목격한 St. Juan Diego 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영성의 순례길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 후 주교님 집전 미사가 있습니다.
- 일시 : 2019 년 9 월 21 일(토) 10AM - 8PM
- 장소 : Immaculate Conception Parish
- 참가 신청 : www.LightingHeartsOnFire.org/walking-pilgrimage
- 참가 신청비 : \$20 (8/30 까지 신청자에 한함)
\$25 (8/30 이후 신청자)

◆ 은혼식, 금혼식 축하 예식

- 결혼 25 주년, 50 주년을 기념하여 혼인서약을 새롭게 하는 혼인갱신식이 체키오 주교님 주례로 있습니다.
- 일시 : 10 월 27 일(주일) 오후 4 시
- 장소 : St. Francis of Assisi 메타천 주교좌 성당
- 온라인 등록 마감 : 10 월 11 일 (금)
- 온라인 등록 : <https://diometuchen.org/offices-and-ministries/family-and-pastoral-life/family-life/silver-and-gold/>

◆ H마트 상품권

- 성모회에서 H마트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환우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영철 프란치스코, 장인석 미카엘, 최규학 프란치스코, 하건철 안토니오, 이정우 바오로, 조원봉 빈첸시오, 오옥순 수산나, 정영옥 수산나, 최혜경 데레사, 최경삼 안나, 김경희 수산나, 오홍순 카타리나,

◆ 소공동체 소식

◆ 9 월 사목회의

- 일시 : 8 월 25 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회의실
- 장소 : 친교실 회의실

◆ 8 월 구역장 월례회의

- 일시 : 8 월 25 일(주일) 미사 후
- 장소 : 친교실 회의실

◆ 구역모임

- 노스 에디슨 구역
- 일시 : 8 월 31 일(토) 저녁 7 시
- 장소 : 오용덕(헨리코) 형제님 댁

복음 묵상 나눔 질문

◎ 복음 나눔

내 마음에 다가온 성경말씀 속에 드러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눕니다. 복음 안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지, 어떤 모습을 보여 주시는지를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간단하게 나눕니다

✧ 루카 13,22-30(연중 제 21 주일)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 동안,”
(루카 13,22)

1. 예수님은 항상 길을 가시는 분이십니다. 길을 가시며 사람도 만나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치유도 하십니다. 특별히 루카복음에서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은 당신의 죽음이 예기되어 있기에 비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내가 가는 길(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향해 가는)의 여러 모습들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루카 13,26)

2. 우리 각자는 예수님을 만나면, 하느님을 뵈게 되면 할 말들이 참 많습니다. 서로 주님 앞에서 하고 싶은 말들을 나누어 봅시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한 말들에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라는 말로 반문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쫓겨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 (루카 11,30)

3. 지금 ‘쫓겨’, ‘첫째’ 등 위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나누어 봅시다.

✧ 루카 14,1-7(연중 제 22 주일)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루카 14,10)

1. 낮은 자리는 눈에 잘 띄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다른이들보다 낮은 자리, 보이지 않는 자리를 선택해 본 경험이 있나요? 그 때의 느낌이 어떠했나요?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루카 14,11)

2.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높이고 싶은 내 안의 모습들을 솔직하게 나누어 봅시다.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루카 14,14)

3. 예수님께서서는 보답 받지 못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하십니다. 보답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했던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